



농어촌공사 나주시사, 나주상고와 미래인재 육성 맞손

승인 : 2026-05-27 17:10:08

지역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나서



류화열 농어촌공사 나주시사장(왼쪽)과 이동훈 나주상고 교장이 27일 지역사회 발전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동준 기자

아시아투데이 신동준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는 27일 나주상업고등학교와 지역사회 발전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학생들이 공공기관의 역할과 농어촌 분야 업무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진로개발과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협력사업 추진 △학생 대상 진로·취업 교육 및 직

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장 견학 및 기업체 탐방 등 현장 중심 교육활동 지원 △공공기관 이해 증진을 위한 특강 및 교육 지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와 자문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교류를 넘어, 지역 학교와 공공기관이 함께 지역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류화열 지사장은 "지역의 미래는 지역 인재를 어떻게 키워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공공기관과 농어촌 분야를 보다 가까이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과 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준 기자 sdj0523@asiatoday.co.kr